한국축구, 4년 후 도전은 계속된다

2022 카타르월드컵 결산

우루과이전서 인상적 경기력
가나전 조규성 앞세워 추격
포르투갈전서 극적 역전승
'최강' 브라질에 맹렬히 맞서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4대 1로 패배하며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된 대한민국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을 끝으로 감동적인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극적인 경기로 온 국민을 감동시켰던 대표팀은 이제 4년 후를 기약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4일 대회 첫 경기를 치렀다.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대회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우루과이에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마드리드에서 세계 최고 수준 미드필더로 성장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었다. 이적료 1300억여원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에 합류한 다윈 누녜스도 있었다.

여기에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서 떨어뜨렸던 수아레스와 카바니 등 노련한 공격수들까지 포진해 있어 한국이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4년 간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우루과이를 압도했다. 한국은 패스를 이어가고 세컨드볼을 탈취하면서 공 소유권을 놓지 않았다. 우루과이 감독이 한국 공을 뺏기 쉽지 않았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벤투 감독이 주창해온 빌드업 축구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우루과이전은 무승부로 끝났다. 상대가 골대를 여러 번 맞히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한국이 경기를 주도해 이길 만했다는 평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골을 넣지 못해 승리를 놓쳤다는 점이었다.

벤투호의 실력을 목격한 축구팬들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이 지난 28일 열렸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가나를 몰아붙였다. 우루과이전 초반처럼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듯 한 분위기에 한국 축구팬들은 들떴다. 방심은 금물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조던 아예우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2골을 만들었다. 조던 아예우가 문전으로 띄운 공은 모하메드 살리수와 모하메드 쿠두스를 통해 한국 골문을 뚫었다.

경기를 포기할 법도 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규성이 헤더로 잇달아 2골을 터뜨리며 기적적으로 동점이 됐다. 승리의 여신이 한국 쪽을 향해 웃음을 짓는 듯 했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다. 가나는 한국 측면을 돌파한 뒤 문전으로 공을 연결했고 쿠두스가 또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가나전 패배로 1무1패가 된 한국은 좌절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표팀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에 적은 점수를 내주면서 질 경우 한국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다.

포르투갈은 역시 강했다. 지난 3일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은 한국 측면을 뚫으며 경기 초반 손쉽게 선제골을 넣었다. 포르투갈은 16강전에 대비해 주전을 대거 빼고도 후보들끼리 매끄러운 공격 작업을 수행하며 골을 넣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한국은 계속해서 포르투갈 진영으로 전진하며 공격을 이어갔고 김영권이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조별리그의 대미는 주장 손흥민이 장식했다. 후반 들어 무리한 드리블로 득점 기회를 날렸던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단독 질주 후 절묘한 침투 패스를 황희찬에게 전달했다. 허벅지 부상을 안고도 출전한 황희찬은 교체 투입 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같은 시간 가나와 우루과이 간 경기도 열리고 있었다. 우루과이가 2-0으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한국이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서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루과이가 1골만 더 넣어도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16강 탈락이 유력했지만 가나는 끝까지 싸웠다. 가나는 2010 남아공월드컵 8강에서 우루과이에 막혔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가나는 자신들이 16강에 못 갈지언정 우루과이가 16강에 오르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자세로 경기를 치렀다. 결국 경기는 2-0 그대로 끝났고 한국이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어진 16강전은 한국 입장에서는 보너스였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상대하게 됐지만 벤투 감독도 선수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이 된 한국은 맹렬하게 맞섰다. 체력적인 열세 속에 1-4로 대패했지만 한국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공수 조직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축구를 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벤투의 4년 담금질 팀 조직력 빛냈다

4년동안 감독 교체 없이 훈련 지속
주눅들지 않는 투쟁정신 '인상적'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대한민국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역대 2번째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는 4년에 걸쳐 조직력을 다진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한국 축구는 그간 성급한 감독 선임과 이에 따른 뒤늦은 감독 경질, 그리고 임시 감독 체제 하에서의 본선 운영이라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대한축구협회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했고 이후 4년간 교체 없이 팀을 맡겼다.

벤투 감독은 2018년 8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후부터 줄곧 빌드업 축구를 주창해왔다. 공을 소유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주도권을 쥔 가운데 득점에 이르는 빌드업 축구를 한국 축구에 이식하겠다는 게 벤투 감독의 청사진이었다.

이를 놓고 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 축구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잔뜩 웅크려 일단 상대 공격을 막고 역습으로 골을 노리는 방식이 약체인 한국에 더 어울린다는 것이었다. 손흥민 등 유럽파들이 세계 최고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해도 벤투가 제시한 빌드업 축구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은 사라지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그래도 자신의 계획을 고수했다.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벤투를 향해 고집불통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실제로 월드컵 직전까지 벤투가 약속했던 빌드업 축구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브라질과 평가전에서는 측면 수비가 헐거워져 선제골을 내줬고 중원에서 패스 실수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헌납했다. 중원에서 공을 뺏긴 뒤에 차단에 실패하며 골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달 열린 파라과이전에서도 중원에서 공을 뺏긴 뒤 상대 공격 속도를 늦추지 못해 골을 허용했다. 심지어 코너킥 공격 후 공을 따내지 못해 그대로 역습을 당해 골을 먹었다.

지난 7월 2022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전에서는 일본의 전방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0-3으로 완패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9월 열린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측면 수비가 헐거워지면서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골까지 허용했다.

이처럼 우려 속에 시작된 카타르 월드컵이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벤투의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달콤한 결실은 16강 진출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벤투호가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 강호를 만나면 주눅이 들어 심리적으로 이미 지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세 싸움이 중요한 스포츠에서 이 같은 심리는 패배와 직결된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경기 주도권을 쥐는 빌드업 축구를 통해 이 같은 패배주의를 극복했다. 이는 이번 월드컵에서 강팀에 승리를 거둔 아시아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사우디와 일본은 전반전에는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웅크렸다가 후반에 상대가 방심한 틈을 노려 역전승을 거뒀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강하게 맞붙어 기싸움을 벌였다.

벤투 감독은 강팀과 대등하게 싸워 승리를 노리는 투쟁 정신까지 대표팀에 이식했다. 이는 16강 진출이라는 외적인 성과 뒤에 숨어 있는 가장 큰 공로다. /뉴시스

진안 유소년 승마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입상'

전북승마협회 소속 출전 종합성적 2위 거둬

진안군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대표 이영래)이 지난 4일 경북 구미시 승마장에서 열린 승마 대회에 전북승마협회 소속으로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북승마협회, 경기승마협회, 전북 승마협회 등 '도 단위 승마협회'가 참석해 마장마술, 장애물경기, 릴레이 경기 등을 참석해 종합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전북승마협회 소속으로 참가한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은 100class 장애물 경기에서 김고경(안천중)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80class 장애물 경기에서 김재훈(안천중)이 2위를 차지하며 전북승마협회가 총 점수 22점으로 2위를 기록하는데 견인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유소년부로 참가하지 않고 통합부로 열려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이 상위부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실력을 입증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유소년 승마단의 발전을 위해 지원 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